

# 화장실문화의 변천



글 박 윤 남 (마스공편집부장)

화장실문화의 변천을 알기 위해서는 밀접한 관계인 주거문화의 변천을 함께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다. '처갓집과 함께 멀면 멀수록 좋다'고 하였던 화장실이 집안의 내부로 진입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화장실의 획기적인 변화가 진행된 아파트의 등장과 변화과정을 화장실의 「기능적인 개념」이 추가되는 것을 예로 설명하여 본다.

## 화장실의 변천

화장실은 변소·뒷간·축간이라고도 하며 사찰에서는 해우소로 불리기도 한다. 화장실을 일컫는 말들은 나라마다 또는 지방마다 그 표현이 참으로 다양하며 어원을 쫓아가다 보면 재미와 함께 철학적인 면까지 엿볼 수 있다.

(각국의 화장실 어원-미소공 2000년 1·2월호 편소(편소)만들기 “참조”-홈페이지)식사와 배설은 밀접한 관계로 인류 역사와 함께 화장실도 존재하였겠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생(목욕 등)이라는 개념은 거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다. 기원전 3,000여 년경부터 시작된 인더스 문명은 파키스탄의 인더스 강 골짜기에서 개인용과 공중목욕탕이 발굴되기도 하였으며, 기원전 1,500년경까지 이집트 귀족의 집에는 더운물과 찬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동관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고대 로마시대에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장실문화를 갖춘 문명국으로 상·하수도가 발달하여 수세식화장실로 암거(暗渠)에 의한 하수도로 강

이나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까지 원시적인 농경생활식 화장실(뒷간, 야외변소, 요강 등장)로 되 돌아갔고 오물은 정원 구석이나 도로에 버렸다. 최초의 수세식변기는 1596년에 영국의 하링튼

경(卿)에 의해 발명되어 그 후 1775년 보완되었고 (세계최초 수세식변기 특허, 영국의 알렉산더 커밍) 1847년 영국정부의 대하수로(大下水路)시설이 완성되어 “분뇨를 하수시설에 방류한다”는 법령이 발표되면서 수세식화장실이 일반화되었다. 일본에 수세방식의 변기(와변기)가 도입된 것은 메이지 시대의 문명 개화기에 재벌 등 일부 부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차에 변소가 설치된 것은 1890년에 영국으로부터 수세식변기가 설치된 기차를 수입하여 도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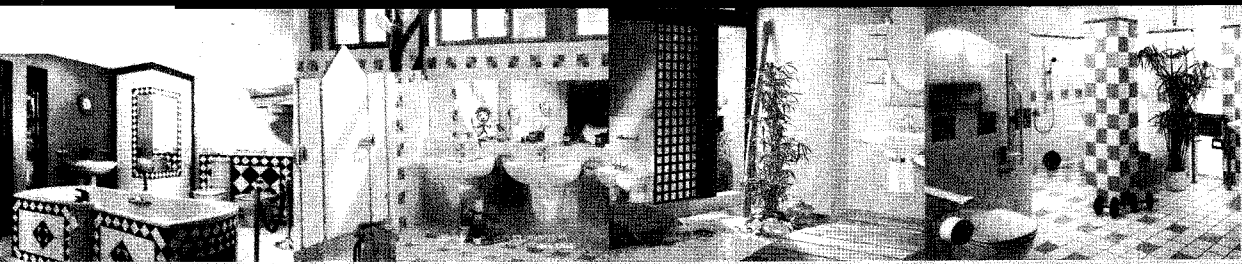
▲고대로마의 유적지



카이도선(東海鐵線)에 배치된 것이 처음이며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수세식변기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 기능적인 측면에서 변천

우리 나라에 수세식변기(와변기)가 언제부터 들



▲욕실의 전체 이미지를 세트화 하여 제품을 배치

▲공중화장실도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쉽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동양적 이미지를 잘 살린 욕실공간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욕실 시스템



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찾기 어렵지만 대략 일제시대로 본다.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 등 관공서, 특급호텔, 은행, 백화점에서 수세식변기를 사용하였으며 좌변기의 등장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군의 활동무대를 중심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편에서는 화장실의 시대적인 변화보다는 기능적인 측면

이 강화되는 3가지(배설, 목욕, 휴식)를 갖춘 공간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기로 하여 배설의 개념에서 시작된 화장실에 목욕의 기능이 추가되고 휴식의 개념이 도입될 때마다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배설기능의 화장실

청동기시대에는 집단주거지 중심부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변소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삼국시대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신라의 불국사 경내에서 우리 나라 수세식변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돌(石) 매화 틀이 발견되었다.

일반백성부터 임금까지 두루 사용하였던 요강은 신부들의 필수 혼수용품이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충남 부여에서 발견된 것으로 다소 해학적이며 백제의 독창적인 면을 짐작케 해준다.

(미소공 2001년 2월호, 최초의 수세식변기에서 요강문화까지)

유교적인 윤리관의 영향으로 조선시대는 상류사회 주택의 경우 사랑채와 안채가 분리되어 변소 형태 역시 안변소(女)와 바깥변소(男)가 별도로 마련되었고 밤에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요강을 사용하였다.

전통적으로 농경문화였던 한국사회에서 APT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화학비료가 일반화되기 전인 70년대 초까지 분뇨는 농사에 거름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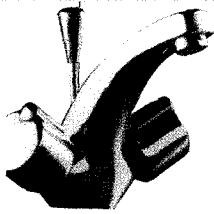
### 목욕기능의 화장실

우리조상들은 목욕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는데 이것은 여름철 이외에는 땀을 별로 흘리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의 기후 적인 풍토와도 관계되어 목욕습관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오히려 목욕이란 종교적인 양식을 전제로 “목욕재계”의 용어가 뜻하듯 목욕한다는 자체가 신성시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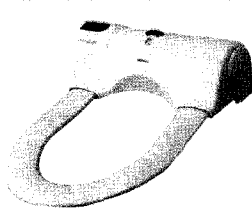
목간(목간), 목욕간(목욕간), 관욕(관욕) 등으로 불리며 1900년대에는 북수간(북수간)목욕통, 목간통으로 불리던 목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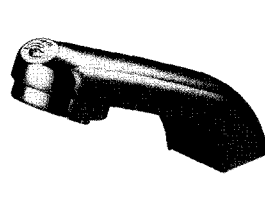
1800년경 프랑스의 변기 (좌식양변기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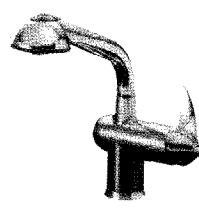
세면기용 혼합수전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위생 시트



첨단 전장장치를 사용한 노터치 세척 방식의 수전 공공화장실에 주로 사용됨



세면기용 수전 파이프가 높아지면서 밸브의 형태가 다양하게 디자인되고 있다.



1959년대 쓰여졌던 가로꼭지 형태 수전

로 유엔군이 주문하게 되면서 위생도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1957년 국내 최초로 비 수세식대변기 및 소변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국내 타일은 1955년 안양에 설립된 고려특수자기 공장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경제발전과 시기를 맞추어 그 생산량이 증감되었다.

수전 금구류 및 약세사리는 그리 발달되지 않은 가로꼭지 형태의 단수전이 이용되었으나 70년대 아파트가 보급되면서 냉·온수 혼합 수전이 사용되고 80년대 원터치 수전이 개발되고 80년대 중반에는 사우나 시설의 보급과 함께 자동온도감지기가 장착된 기능적인 제품이 일반화되었다.

### 공중화장실은 일제시대에 시작된 공중변소가 기원이다

예전에는 가정의 화장실만 아름답게 꾸미면 되는 개념에서 점차 공중화장실의 위생 및 환경을 고려한 변화가 1996년 말부터 등장하기 시



기존 투피스형 양변기를 사용하다가 1984년 처음으로 원피스형 양변기가 도입되었다.



공공 화장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것이 다중 화장실을 포함하여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민간 소유 화장실까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화장실은 이제 휴식과 사색 등을 하며 재충전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 협의회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새로운 개념으로 문화·환경·복지가 있는 화장실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배설기능에서 목욕기능을 거쳐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가정용 화장실과 아직은 월드컵개최도시를 중심으로 화장실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여되기 위해서는 불결한 화장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불가능 할 것이다.



목욕탕 온냉수 혼합 꼭지 (투밸브 KS 규격상표임.)